

## 韓愈 <鱷魚文>의 祭儀性和 文靈

姜宗姪\*

<目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鱷魚文>의 祭儀性              |
| II. 한유의 驅鱷사건과 그 역사적<br>진개 | IV. 文靈으로서의 <鱷魚文><br>V. 나오는 말 |

### I. 들어가는 말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보다 비정상적이고 특이한 것에 대한 중국인들의 깊은 관심은 裏面 文化를 생동감 있게 이끌어 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이다. 중국 문학사를 통해 길이 이름을 남긴 수많은 작품들 또한 중국문화의 요체인 유교적 성향을 보이기보다는 그 거대한 틀의 틈 사이를 꿈틀대며 빠져나온 상상의 힘이 창조해낸 기이함이나 신비로움으로 오히려 더 많은 대중들과 호흡하였다. 奇特함에 대한 애호, 호사가적 기질은 어찌면 인간의 본질이기에 고대 중국에서도 많은 문인들이 유교로 대표되는 표면 文化를 추구하면서도 비이성·비상식의 이면 文化에 매료되어 그 사이를 맴돌았다. 따라서 많은 중국 문인들에게는 표면과 이면, 이성과 비이성을 아우르는 다양한 모습이 공존한다.

唐代의 중요한 문인이며 정치가, 사상가로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韓愈(768년~824년)에게서도 또한 이러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그가 남

---

\* 東國大學校 中語中文學科 講師

긴 행적을 통해 그의 문학적 풍격을 논의하자면 단연코 佛·道를 배척하고 유가의 道統을 자처한 본인의 성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의 작품 속에 담긴 사상적 배경과 성실한 창작 태도가 이후 많은 문학가들의 모범이 되고, 특히 문운이 흥성했던 宋代에 더욱 존송되었던 사실을 볼 때 우리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鱷魚文>을 보면 그가 이성과 비이성을 넘나드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지닌 문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흔히 알고 있는 그의 도학적 분위기나 다른 여느 문장과도 달라<sup>1)</sup> 많은 관심을 끄는 흥미로운 작품이다.

<악어문>은 한유가 <論佛骨表><sup>2)</sup>를 헌종에게 올렸다가 潮州刺史로 좌천되어 지냈던 몇 개월 사이에 지은 글이다. 한유가 문장을 써서 악어를 물리치려 했다는 일은 한유가 악어의 폐해를 입고 두려워하는 潮州의 백성들을 위해 행한 위민정책 가운데 하나로 실제 있었던 일을 근거로 한 문장이며, 그 사건은 <新·舊唐書>에 각각 기재되기도 하였다. 그 당시에 정법으로 간주되던 불교에 대해 그 해악을 논거를 들어 하나하나 비판하며 간하다가 좌천된 그가 이러한 글을 써서 백성들의 민심을 안정시키려 했다는 점은 다소 모순되어 보인다.

물론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연적 대상을 희생제의를 거쳐 퇴치한

1) 한유의 사위인 李漢이 그의 문장을 정리하여 <昌黎先生集>을 편찬할 때 ‘書啓’, ‘哀詞祭文’, ‘碑誌’, ‘表狀’, ‘雜著’로 분류하였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문장으로 <筆>·<瘞硯銘>·<鱷魚文>의 세 문장을 들고 있다. [唐] 韓愈 著, 閻琦 校注, <韓昌黎文集注釋>(下), 三秦出版社, 2004, 584쪽.

2) 819년(元和 14년) 헌종은 부처님의 손가락 뼈를 궁중으로 맞아들여 모셔두었다. 왕궁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그 불골에 내서의 복을 빌었으며 어떤 이는 분수에 넘치는 시주로 집안이 파산하기도 하였다. 유가의 도를 지키려 했던 한유는 이러한 사태를 방관하고 있을 수 없어 황제에게 장문의 <논불골표>를 써서 올린다. 그는 예로부터 불교를 신봉한 황제가 장수하지 못했으며, 불교가 오랑캐의 종교임을 주장하여 황제의 지나침을 간한 것이다. 그러나 헌종과 한유의 밀접한 관계는 이 불골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며, 한유가 정치적 기반을 잃고 좌천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노장시, <한유>, 중문출판사, 2004, 261-281쪽 참조.

다는 구조의 이야기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악어문> 또한 두려움을 주는 존재를 퇴치하기 위해 일련의 제의를 거친다는 여느 민담의 기본적인 구조를 닮아있다. 그러나 <악어문>이 더욱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가장 주된 이유는 우선 그것이 민담이나 전설이 아닌 記事라는 데에 있을 것이다. 게다가 그 문장을 지은 작자가 당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녔으며 유가적 성향이 짙은 한유라는 점에 있다.

<악어문>은 한유 死後에 더욱 신비하게 운색되어 《宣室志》와 같은 전기집에 실리기도 하였고, 그 황당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한유가 문장을 지어 악어를 쫓았다는 驅鱷의 형상은 점차 과장되고 신비스러워져 그를 모방하여 글을 지어 호랑이를 쫓는 등의 유사한 위민정책을 행한 사람들도 있었다.<sup>3)</sup>

한유의 驅鱷 사건을 거론한 많은 문인들은 한유의 驅鱷을 주로 위민관의 모습으로 평가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미물을 감동시켰다는 의견에 공감하였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모범적인 위민관을 상징하는 하나의 문화적 코드로 자리 잡게 된다. 이 수용의 양상으로 <악어문>은 주로 驅鱷의 형상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그 문장 자체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았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나마 <악어문>의 인의적인 요소와 교화의 효능을 강조하는 제한적인 수용만이 가능했었으며, 창작에서부터 청대 이전의 긴 시간 동안 <악어문>이 지니는 문학적인 가치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sup>4)</sup>

국내에서의 <악어문>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高光敏의 <韓愈 驅鱷 사건과 <鱷魚文>의 수용 양상 연구>는 <악어문>에 대해 가해졌던 다양한 평가와 수용 양상을 정리하여 그에 대한 통시적 고찰이 가능하게 한 중요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그 연구에

3) 한유를 매우 추앙하여 潮州에 한유의 사당까지 지었던 陳堯佐는 <戮鱷魚文>을 지어 한유의 행위를 모방하였고, 이후에도 글을 지어 호랑이를 쫓아냈던 楊叔이나 薛敬之 등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 고광민, <韓愈 驅鱷 사건과 <鱷魚文>의 수용양상>, 《中國語文學誌》 제32집, 2010, 14쪽 참조.

4) 같은 논문, 29쪽 참조.

따르면 <악어문>에 대한 논의는 인의적 요소와 교화의 효용성에 입각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중국 문학이나 사상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한유의 인물됨과 위상에 염두를 둔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중국에서 진행되었던 연구들을 분석해보면 주로 <악어문>의 기이한 발상과 관련해 현실을 풍자한 것으로 본 견해, 위민관으로서의 한유를 부각한 것이나 神物숭배가 만연했던 唐代 사회상과의 관련성을 밝힌 것, 악어문의 문체에 관한 것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sup>5)</sup> 반면 <악어문>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요소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었다. 이러한 비판이 가능한 것은 <악어문>에는 제의적 의미와 문자의 주술성 등과 같은 고대 중국 문화의 일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리 소테츠는 문화의 본질을 종교와 문자<sup>6)</sup>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이야 말로 <악어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한 문화적 연구의 당위성과 이를 위한 이론적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한유의 <악어문>에 내재되어 있는 제의적 의미와 문자의 주술성에 대해 문화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처럼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종교, 문화적 요소를 담고 있는 이 작품 속에는 통치자로서 백성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치유해 주고자 했던 한유의 유가적 이상도 간과할 수는 없으니, 이 또한 중국 문인의 단면을 가늠하게 해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5) 王琳, <韓愈潮州祭鱷的歷史語境和文化反思>(《蘭州學刊》, 第02期, 2007年), 張煜, <論韓愈《鱷魚文》的文體及其淵源>, (《汕頭大學學報》, 第02期, 2008年), 劉玉紅, <韓愈《祭鱷魚文》與唐代的神物崇拜>, (《華夏文化》, 第03期, 2000年), 陳新璋, <也談韓愈“驅鱷”及其《鱷魚文》>(《周口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第06期, 2000年), 莊義青, <鱷魚文、祭鱷神話及其它>(《韓山師專學報》, 第01期, 1988年), 言理, <“祭鱷”與“戮鱷”>, (《中國職工教育》, 第10期, 1996年) 등을 들 수 있다.

6) 리 소테츠 지음, 이동주 옮김, 《한·중·일 한자문화, 어디로 가는가》, 기과당, 2010, 216쪽.

## II. 한유의 駟鱷 사건과 그 역사적 전개

한유가 <論佛骨表>를 올려 황제의 그릇됨을 간함으로 인해 좌천되어 간 조주에서의 생활은 심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최대의 시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주는 한유가 장안을 떠난 지 석 달이나 걸려서 도착할 수 있었던 먼 곳이었다. 한유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이 설 정치적 기반을 잃었기에 심리적인 좌절감도 컸으며, 북방에서 성장한 그가 완전히 다른 자연 환경과 생활 풍습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유는 조주에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백성들에게 끼치는 해악과 폐단을 제거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또한 농사와 양잠에 관심을 기울여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노력하는 한편, 인재를 배양하기 위해 학교를 새롭게 일으키기도 했다. 이와 같은 그의 여러 업적 가운데에서도 악어를 쫓아내려고 한 일은 후세의 여러 사람으로부터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 특이한 발상이 주는 신비감이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때문이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惡溪에 사는 악어가 수시로 나와 가축과 농산물을 먹어치워 백성들이 살 수 없다고 호소하자 한유는 곧 양과 돼지 한 마리씩 잡아 악계에 던져주어 악어에게 먹게 하고는 <악어문>을 지어 악어의 해를 없앴다는 것이다. 다음은 악어를 물리치기 위해 한유가 지은 문장의 전문이다.

원화 14년 4월 24일 조주자사 한유는 軍事衙推인 秦濟를 보내 양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를 惡谿에 던져 악어에게 먹이고 다음과 같이 고하노라.

옛날 선왕께서는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 산과 연못들 사이로 그물·올가미·작살·칼을 놓아 벌레와 뱀 같은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을 이 세상 밖으로 몰아내었다. 그러나 후세의 임금에 이르러서는 덕이 부족하여 멀리까지 통치할 수 없었으니, 長江과 漢水 사이

까지도 모두 내버려두어 오랑캐와 초나라 월나라에 내주고 말았다. 하물며 潮州는 嶺南의 바닷가에 있고 장안에서는 만 리나 떨어져 있는데 어떠하였겠는가?

여기는 악어들이 숨어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기에 정말로 적당한 장소라 할 것이다. 지금 천자께서는 당나라 제위를 계승하시어 신령스럽고 성인다우며 자애롭고 용맹스러워, 온 세상 밖과 온 천하를 모두 달래어 잘 다스리시니 하물며 우의 발자국이 덮었던 양주에 가까운 고장이며, 자사와 현령이 다스리고, 공물과 세금을 바쳐 하늘과 땅의 신과 종묘와 온갖 신들을 제사지내도록 하는 땅이야 잘 다스리지 않겠는가?

악어는 자사와 함께 어울려 지낼 수가 없는 미물이다. 자사는 천자의 명을 받아 이 땅을 지키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런데 악어가 눈을 부릅뜨고 계곡과 호수에 사는 것들을 불안하게 하며 그 곳에 살면서 백성들의 가족과 꿈·뱀뱀지·사슴·노루 등을 잡아먹고, 그 자손들을 불리면서 자사에게 항거하여 우두머리 자리를 다투고 있다.

자사가 비록 우둔하고 약하다 하더라도 또 어찌 악어에게 머리를 숙이고 겁에 질려 가는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며, 백성들의 관리가 되어 여기에서 구차하게 살아갈 것인가? 또한 자사는 천자의 명을 받들어 이 곳의 관리로 부임해 온 것이니, 진실로 그 형세가 악어에게 분별을 해 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 악어도 지각이 있다면 자사의 말을 잘 듣도록 하라!

조주는 남쪽으로 큰 바다가 있어서 고래나 봉새 같은 큰 것도, 새우나 게와 같은 미물들도 모두 받아들여 의지해 살게 하고 새끼를 기를 수 있게 하니, 만일 악어가 아침에 떠난다면 저녁에는 도착할 것이다. 지금 악어에게 약속하노라. 삼일 안에 그 추악한 무리들을 이끌고 남쪽 바다로 옮겨가 천자의 명을 받은 관리를 피하도록 하라. 3일 안에 못하겠다면 5일이 되도록 참아줄 것이며, 5일 안에 못하겠다면 7일까지는 참아줄 것이다. 그러나 7일 안에도 못하겠다면 이는 끝내 옮겨가려 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자사를 무시하고 그의 말을 따르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바로 악어가 어리석고 완고하며 신령스럽지 못해 자사가 말한다 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리라. 아무튼 천자의 명을 받은 관리에게 오만하게 굴며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옮겨 피해가지 않으며, 우매하고 완고하며 신령스럽지 못해서 백성들과 사물에 해를 끼치는 것들은 모두 죽일 수 있다.

자사는 재능이 있는 관리와 백성들을 골라 역센 활과 독화살로 악어를

공격하여 반드시 죽여 버리고야 말 것이니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7)

이 문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천자를 보필하여 민생을 돌봐야 하는 관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한유의 적극적인 의지이다. 그는 자신의 행위가 천자의 관리라는 사실에 있음을 의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비록 천자가 자신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좌천을 시키기는 했지만 그의 은덕을 강조한다. 이것은 자신이 천자에게 임명받은 관리, 즉 천자의 대리인으로서의 권위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같은 의도는 어쩌면 글도 말도 모르는 악어가 아닌 조주의 백성들을 염두에 둔 것인지도 모른다.

한유가 지은 <악어문> 전문에는 그 사건이 성공했는지의 여부는 담고 있지 않다. 한유가 악어를 쫓으려 한 일은 특이한 사건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주의를 크게 끈 것은 아니다. 한유 이후 晚唐 시기 張讀이 지은 필기 소설집 《宣室志》에서 한유의 구악사건을 거론한 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한유 본인이 지은 악어문과는 달리 《宣室志》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다. 옛날 魯恭이 中牟를 맡아 다스릴 때 인정을 베푸니 메뚜기

7) 維元和十四年四月二十四日 潮州刺史韓愈, 使軍事衙推秦濟, 以羊一猪一投惡谿之潭水, 以與鱷魚食. 而告之曰: “昔先王既有天下, 列山澤, 網繩擣刃, 以除蟲蛇惡物爲民害者, 驅而出之四海之外. 及後王德薄, 不能遠有. 則江漢之間, 尚皆棄之以與蠻夷楚越, 況嶺海之間, 去京師萬里哉? 鱷魚之涵淹卵育於此, 亦固其所. 今天子嗣唐位神聖慈武, 四海之外六合之內皆撫而有之況禹跡所揜揚州之近地 刺史縣令之所治出貢賦以供天地宗廟百神之祀之壤者哉. 鱷魚其不可與刺史雜處此土也 刺史受天子命, 守此土, 治此民, 而鱷魚睥然不安谿潭, 熊·豕·鹿·羆, 以肥其身, 以種其子孫, 與刺史亢拒. 爭爲長雄. 刺史雖駑弱, 亦安肯爲鱷魚低首下心. 佞佞明明, 爲民吏羞, 以偷活於此耶. 且承天子命以來爲吏, 固其勢不得不與鱷魚辯, 鱷魚有知其聽刺史言. 潮之州, 大海在其南鯨鵬之大蝦蟹之細, 無不容歸以生以食鱷魚, 朝發而夕至也. 今與鱷魚約盡三日, 其率醜類南徙于海, 以避天子之命吏. 三日不能至五日, 五日不能至七日, 七日不能是終不肯徙也. 是不有刺史, 聽從其言也. 不然則是鱷魚冥頑不靈 刺史雖有言不聞不知也. 夫傲天子之命吏, 不聽其言不徙以避之, 與冥頑不靈爲民物害者, 皆可殺. 刺史則選材技吏民, 操強弓毒矢, 以與鱷魚從事, 必盡殺乃止, 其無悔! 황건 역음, 이장우·우재호·박세욱 옮김, 《고문진보》, 을유문화사, 2007, 533-542쪽 참조.

도 피하였고, 黃霸가 九江을 다스릴 때에는 호랑이가 모두 도망갔다. 이것은 모두 정치에 감화된 것이니 날짐승과 들짐승들도 모두 교화시킬 수 있다”<sup>8)</sup>라는 말을 덧붙여 그 사건이 한유의 어진 정치를 베풀고자 하는 정성과 공덕에 기반하고 있음을 복선으로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宣室志》가 한유 사후에 편찬된 것으로 그 사이에 일어난 한유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宣室志》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낸 후의 결과에 대한 기록이다.

그날 저녁 군의 서쪽에 폭풍이 불고 천둥이 쳐서 성곽이 요동치더니 한 밤이 돼서야 잔잔해졌다. 그 다음날 백성들은 그 연못에 물이 말라버린 것을 알게 되었고, 한유는 사람을 시켜 그 자취를 쫓게 하여 늪에서 60리 떨어진 곳에까지 도달하였다.<sup>9)</sup>

이렇게 구약사건의 결과에 대한 언급은 물론 한유의 악어문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구약사건에 대한 첫 번째 평가라고 할 수 있으며, 《宣室志》가 신기한 일들에 대한 기록과 창작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기이한 결과에 대한 서술은 사건의 신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작자가 선택한 당연한 결과라고 보인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중국의 二十五史 가운데 하나인 《新·舊唐書》에 기록된 <악어문> 역시 《宣室志》의 내용과 유사한 결말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날 저녁 폭풍이 불고 우레가 악계 가운데서 치더니 수 일이 지나자 물이 모두 말라 버려서 악어는 서쪽 60리 밖으로 옮겨갔다. 이로부터 악어

8) 吾聞，至誠感神。昔魯恭宰中牟，雉馴而蝗避，黃霸治九江，虎皆遁去。是知政之所感，故能化鳥獸矣。[唐]張讀撰，《宣室志》，《文淵閣四庫全書》[1042]，臺灣，商務印書館，1983.

9) 是夕，郡西有暴風雷聲震山郭夜分霽焉。明日里民視其湫水，已盡。公命使窮其跡，至湫西六十里。[唐]張讀撰，《宣室志》，《文淵閣四庫全書》[1042]，臺灣，商務印書館，1983.

의 해가 없어졌다.<sup>10)</sup>

《신당서》에서의 이러한 기록은 《구당서》와 거의 같다. 그런데 正史인 《新·舊唐書》가 이처럼 기이한 색채를 띠고 있는 구악 사건의 결말을 그대로 신고 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宣室志》는 필기소설집이니 어떠한 황당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도 그것의 진위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없다. 게다가 《宣室志》는 한유가 죽은 지 30여 년이 지난 뒤에 편찬되었으며, 작자 장독은 조주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宣室志》에 실린 이 이야기가 민간에서 떠도는 전설에서 채록한 것임에 분명하다.<sup>11)</sup>

그러나 이 구악 사건을 정사에서 언급하였다는 것은 그 사건의 성공을 재차 확인하는 것으로써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 사건의 진위를 확인하긴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新·舊唐書》가 <악어문>을 인용한 것은 그것의 문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가 아니라 한유의 정치적 업적을 칭송하기 위한 것이었다<sup>12)</sup>는 점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악어문>은 역대로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아왔다. 金代의 王若虛는 <악어문>을 혹평하며 《新·舊唐書》가 <악어문>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sup>13)</sup> 또 송대의 왕안석도 <조주 여자사를 송별하며 (送潮州呂使君)>에서 “괴이한 이야기로 백성을 의혹스럽게 하였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sup>14)</sup>

10) 祝之夕, 暴風震雷起於谿中. 數日水盡涸, 西徙六十里. 自是潮人無鱷患. [宋] 歐陽修·宋祁 撰, 《新唐書·列傳》 卷101, 中華書局, 1995, 5263쪽.

11) 劉玉紅, <韓愈《祭鱷魚文》與唐代的神物崇拜>, 《華夏文化》 第3期, 2000, 53頁.

12) 고광민, 앞의 논문, 17쪽.

13) 왕약허는 “한퇴지의 <악어문>은 뛰어난 작품이 아니다. 사관은 그 사건과 제목만 기재하면 될 것인데 그 문장 전부를 수록하였으니, 꼭 그래야만 했는가 (韓退之驅鱷魚文, 苦非佳作. 史臣但書其事目足矣, 而全錄其辭, 亦何必也.)”라고 지적하였다. [金] 王若虛 撰, 《滄南遺老集》 卷二十一 <諸史辨惑>, 《文淵閣四庫全書》 [1190], 臺灣, 商務印書館, 1983.

한유의 <악어문>은 그것이 쓰인 당대보다는 후대에 와서 더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작품 그 자체보다는 보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평가되고 비판되었다. 한유의 정치적 업적에 주안점을 둔 사람들은 그것을 ‘정성’과 ‘감화’의 소산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합리적 사고의 지식인들은 ‘백성들을 미혹시킨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한다. 우리는 이러한 평가와 비판을 넘어서서 <악어문>이 가지는 작품으로서의 정당한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 그에 내재한 문화적 요소와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 III. <鱷魚文>의 祭儀性

<악어문>이 주로 한유의 위민관으로서의 정성과 그에 대한 악어의 감복이라는 모티프로 하나의 문화적 모델이 되었다면 <악어문>이 사회에 끼친 영향은 분명 유가적인 가치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유가의 도통을 이어받았음을 자처하던 한유의 평소의 이념과 합치하는 타당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편의 문장으로 악어를 감복시켰다는 그 내용은 대단히 신뢰할 것이다. 그야말로 기이한 견문과 사건을 담아내던 필기소설집이나 실릴 정도의 현실적으로 믿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아무리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평소의 한유에게서는 상상해내기 힘든 이야기이다. 그는 미신적인 것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사원이나 승려들에게 회사하는 것조차 싫어했다. 그런 한유이었기에 한 편의 글로 악어를 퇴치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백성들을 미혹시킨 것이라는 비판 역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나 비판은 모두 글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한 유라는 사람과 결부된 것이다. 우리는 <악어문>이 하나의 완결된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찾으려 한다. 이러한 결과 아래에서만이 작가로서의 한유

14) 노장시, 앞의 책, 284-285쪽 참조.

그리고 작품으로서의 <악어문>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비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악어문>의 전개는 바로 악어에게 지내는 제의로부터 시작된다. 한유는 악어를 퇴치하기 위해서 양과 돼지를 한 마리씩 잡아 강물에 던져 넣는 희생제의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 이러한 희생제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어왔던 것이데, 《詩經》에서도 그 기록을 볼 수 있다. 小雅의 <何人斯>에서는 “이 세 가지 물품(저주에 사용하는 개, 돼지, 닭)을 내어 놓고 그대를 저주하리(出此三物, 以詛爾斯)”라고 노래한 다음 “이 좋은 노래를 만들어서 옳지 못한 사람을 비판한다(作此好歌, 以極反側)”<sup>15)</sup>고 기술하였다. 孔穎達도 이러한 저주의식에 대하여 “임금은 돼지로, 신하는 개로, 백성은 닭으로 각각 저주의 의식을 행한다.(君以豕, 臣以犬, 民以鷄)”<sup>16)</sup>라고 하였다. 이 사실로 볼 때 당시의 저주 의식은 형벌 못지않게 두려운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악어를 쫓아내기 위해 한유가 행한 이 의식도 일종의 희생제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제의는 단순히 숭배의 대상에 대한 굴복의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 대상으로부터 무형의 영적인 힘을 빌려 다른 종족과 서로 싸우거나 혹은 요사한 기운의 해침을 받지 않도록 자기를 보호하려는 적극적 행위의 일환이다. 따라서 제의는 무형의 전투라고 볼 수 있다.<sup>18)</sup> 제사와 같은 종교적 행위는 자연계 속에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또한 대적할 수 없는 수많은 난관들을 영적 존재의 힘을 빌어서라도 극복하고,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려는 인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제사라는 행위는 장차 인간에게 힘을 빌려줄 영적인 대상, 즉 정령이나 신령과 같은 존재를 즐겁게 해 줄 일종의 유희였다고 할 수 있다. 갑골문

15) [宋] 朱熹 集, 《詩集傳》, 臺灣, 中華書局, 1982, 144頁.

16) [唐] 孔穎達 撰, 《毛詩正義》, 《文淵閣四庫全書》 [69], 臺灣, 商務印書館, 1983.

17) 김근, 《한자는 중국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민음사, 1999, 25쪽.

18) 許進雄 지음, 洪熹 옮김, 《중국고대사회: 문자와 인류학의 투시》, 동문선, 1991, 532쪽 참조.

의 ‘祭’ 자는 손에 고깃국물(혹은 핏물)이 떨어지는 고깃덩이를 들고 있는 모양이며, 이것으로 신령에게 바치는 제사 행위를 표시하고 있다. 商代 卜辭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凡人들이 좋아하는 물건, 예를 들면 酒肴·美食·가무와 음악·마차·패옥 등의 보물은 물론 심지어는 사람까지도 희생의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이다.<sup>19)</sup> 제의에서 인간은 신에게 제물을 바침으로써 자신들에게 내려진 재앙이 거두어지기를 기원하였다. 이 때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은 현재 인간에게 일어난 재난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조치이기도 하였다.<sup>20)</sup>

신령에 대한 각종 의례는 일반적으로 찬송을 하거나 간청하여 신령스러운 힘과의 유희를 도모하려는 데서 이루어진다. 그 방법으로는 가무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압박이나 추방과 같은 강경한 수단으로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sup>21)</sup> 한유가 악어를 쫓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바로 후자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제물을 수령하는 대상은 신성성을 상실한 채 제물을 바치는 집단에게 일상생활에서 위협과 두려움을 주는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이렇게 인간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은 사라져야 하고,<sup>22)</sup> 그렇게 하기 위해 보다 강경한 수단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희생제의라는 종교적 행위가 인간의 오래되고 본질적인 문화적 산물이라 하더라도 巨儒 한유가 악어를 대상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평소의 그를 생각하면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그가 추구하는 공자의 가르침, 즉 “불가사의한 현상이나 존재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不語怪力亂神)”는 가르침과도 크게 어긋난다. 백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어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였더라도 반드시 제사라는 종교적 행위

19) 같은 책, 534쪽 참조.

20) 이영수, <한국설화에 나타난 인신공희의 유형과 의미>, 《한국학연구》 제13집, 81쪽.

21) 시라카와 시즈카, 《한자의 세계》, 솔 출판사, 2008, 294쪽.

22) 이영수, 앞의 논문, 91쪽.

가 필요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제방을 쌓을 수도 있고 악어를 사냥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유는 <악어문>이라는 한 편의 문장을 지었다. 이것은 그가 문장 한 편과 희생 제의로 민심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했다. 우리는 한유의 이러한 믿음과 행위가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하기 이전에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하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한유는 조주의 위민관으로서 사람들의 가장 큰 근심이 무엇인지를 물었으며 악어의 해악을 전해 들었다.<sup>23)</sup> 이로써 그에게는 악어를 퇴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임무로 주어졌다. 백성들과의 소통으로 파악한 해악이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심이 중요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유가 악어를 물리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을 민심은 어떻게 수용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唐國史補》의 다음과 같은 기록은 唐代 사회에 신령 숭배가 성행했음을 보여준다.

해마다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늘어 일일이 다 기록할 수도 없다. 시골구석 작은 마을에까지 반드시 사당이 있었다.<sup>24)</sup>

唐代 사회는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민간에서만만이 아니라 전 계층에 걸쳐 신령을 숭배하는 풍조가 성행했었다. 왕실이나 조정의 대단히 엄격하고 변화한 제의에 적용되던 여러 법규, 제기, 공물까지도 사실은 민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기반을 둔다. 그만큼 향촌의 제의는 민속적 뿌리와 영향력이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왕실이든 향촌이든 제사를 올리기

23) “初, 愈至潮, 問民疾苦, 皆曰: 惡溪有鱷魚, 食民畜產且盡, 民以是窮.”([宋] 歐陽修·宋祁 撰, 《新唐書》, 中華書局, 1995. 5262쪽), “初, 愈至潮陽, 既視事, 詢吏民疾苦, 皆曰: 郡西湫水有鱷魚, 卵而化, 長數丈, 食民畜產將盡, 以是民貧.” [後晉] 劉 昫 等撰, 《舊唐書》, 中華書局, 1995. 4202쪽.

24) 每歲有司行祀典者, 不可勝紀, 一鄉一里, 必有祠廟焉. [唐] 李肇 撰, 《唐國史補》 卷下, 《文淵閣四庫全書》[1035].

전의 의식, 제사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과 방법, 축문을 읽고, 태우는 등 제사의 세세한 절차 등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이처럼 당대 사회 전반에 대단히 보편적인 신령송배 풍조와 분위기로 말미암아 산천초목이나 호수, 저수지 할 것 없이 신령들이 모셔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따라서 각지의 지방관들은 반드시 제 때 그 지역의 城隍에 제사를 지내야만 했다. 그와 함께 만일 특별한 재난을 당하기라도 하면 그 때마다 제사를 지내 도움을 청하는 일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sup>25)</sup>

이러한 당대 사회의 분위기를 고려해 본다면 한유가 선택한 미신적인 방법이 전혀 이상할 것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한유 뿐 아니라 당대 지방관에 부임되었던 白居易, 張說, 張九齡, 杜牧, 李商隱 등 여러 문인들의 작품 속에는 각각 적당한 시기에 신령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지은 제문 형식의 글들이 다수 보인다.<sup>26)</sup>

당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신령 송배는 물론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원시적인 사유를 기본적으로 배태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것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한유 자신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유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그를 보좌하는 주변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앞에서 본 것처럼 당대에는 신령 송배가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한유가 그러한 방법을 권유 받았을 때 백성들의 신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백성들을 가장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유의 <악어문>은 악어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한유의 결단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유가 <악어문>을 지어 민고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은 결코 미신적인 것으로 백성을 미혹

25) 程薔, 董乃斌 著, 《唐帝國的精神文明》,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 418-424 頁 참조.

26) 같은 책, 428-430쪽 참조.

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 IV. 文靈으로서의 <鱷魚文>

한유의 구악사건이 역사서에 실릴 만큼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것의 독특한 발상 때문이었을 것이다. 즉 악어에게 인간의 말로 설득하여 추방하겠다는 것이 곧 <악어문>의 핵심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발상은 한유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악어에 대한 인격화는 精靈觀(animism)에 바탕을 둔 원시 종교적 관념에서 비롯한다. 갑골 卜辭에서 재앙이나 탈을 가리키는 글자들은 모두 동물의 형태를 본 뜬 글자들인 것을 보더라도 애니미즘의 관념이 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sup>27)</sup>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유의 행위는 인간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고, 또한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악어라는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악어문>을 통해 한유가 보여준 행위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인 행위가 아닌 초월적 대상을 향한 종교적인 행위였던 것이다. 따라서 <악어문>은 정치적 수령을 겸한 司祭에 의해 주재된 제사의식에 쓰인 신과 사제 간에 사용되었던 주문과도 같은 것이다.

결과의 진위는 확인할 수 없지만 史書의 기록처럼 악어를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한유가 거행한 일련의 제사의식을 통해서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제사의식 가운데 무엇이 악어를 쫓아내었다고 생각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한유가 지은 <악어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한유가 <악어문>을 지어 백성들을 현혹하였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로 백성들은 <악어문>이 악어를 몰아내었고 믿었고, 한

27) 시라카와 시즈카, 《한자의 기원》, 이다 미디어, 2009, 75-76쪽.

유 또한 백성들의 그러한 믿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 자신의 평소의 생각에 배반되는 일을 주저 없이 하였던 것이다. <악어문>이 악어를 몰아내었다는 그 믿음은 축문, 즉 주재하는 자의 기원이 담겨있는 문자가 정말 주술적인 힘(文靈)을 발휘하였다는 생각 때문인 것이다.

<악어문>은 악어를 추방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고(告)”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新·舊唐書》에서는 나란히 한유가 “기원하였다(祝)”라고 기록되어 있다. 《說文解字注》에 따르면 祝은 ‘사람의 입을 통해 신과 교류하는 것(以人口交神也)’<sup>28)</sup>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축원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祝禱라고 쓰여 심신을 정결하게 하여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주술적인 말을 아뢰어서 좋은 일을 구하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말로써 나타내어야만 효험이 있다는 전제조건이 붙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말은 원래 음성으로 외재하지 않으면 주술적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sup>29)</sup> 흔히 신과 司祭사이의 소통에 쓰였던 주문은 보통 사람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인간의 힘을 넘어선 어떤 특별한 신통력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그렇게 본다면 악어를 쫓아내기 위한 의식에 쓰인 일종의 축문인 <악어문>은 인간의 힘을 넘어선 주술적 힘을 가진 부적과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마음속의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 말을 한다. 흔히 불교에서 以心傳心이라는 것으로 말의 한계를 나타내지만, 일반적으로 말 이상으로 마음의 것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데 말의 이러한 내재적 기능이 단순히 인간의 내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고대 중국인들은 믿었다. 즉 말은 곧 신의 뜻을 알리는 것이며, 거기에는 인간의 소명을 신에게 전하는 신비로운 기능이 있다는 것이었다.<sup>30)</sup> 그들은 말이 음성으로 외재할 때에는 주술적인 작용이 함께 발동된다는 신화적 믿음에 사로잡혀 있

28) [漢] 許慎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97, 6쪽.

29) 시라카와 시즈카, 《한자의 세계》, 솔 출판사, 2008, 340쪽.

30) 弘禪(吳光赫), <經傳信仰 成立에 관한 一考察>, 《중앙승가대학논문집》, 1996, 11쪽.

었다.<sup>31)</sup> 그래서 예로부터 말은 쉽게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며, 내뱉은 말이 씨가 되며, 나쁜 일은 오히려 널리 알려야 득이 된다거나, 의식적으로 던지는 말이 귀신을 일깨워준다는 등의 믿음들이 형성되어 왔던 것이다. 이는 모두 사람의 말을 귀신이 들을 수 있다는 사고에서 형성된 공통된 인식<sup>32)</sup>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말은 일시적인 것이다. 주술의 능력이 영원히 보존되도록 하려면 이것을 정착시킬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기도의 말을 문자로 옮겨서 축문으로 두는 방법 외에는 없다.<sup>33)</sup> 문자는 이러한 말의 기능을 자형 위에 정착시킨 것이다. 따라서 말의 주술적 기능을 인지하였던 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문자 역시 주술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문자는 통치를 위해 고안해 낸 실무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고 신과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리 소테츠는 한자가 점복에서 보는 것처럼 애초에 신과의 소통에서 생산된 하나의 기호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종교의식의 과정에 필요한 주술적 수단이었다고 말한다.<sup>34)</sup> 문자의 주술적 기능을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그다지 새로운 것은 없지만, 한자가 인간의 말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주술적 기능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며, 한자는 태생적으로 주술적임을 주장하는 바는 참고해 볼 만하다. 어쨌든 한유는 <악어문>이라는 문장을 통해 악어와의 소통을 꾀하고 있다. 이는 한유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믿음, 즉 만물은 혼령을 가지고 있고, 이 혼령과의 소통에는 언어의 힘이 작용할 것

31) 김근, 앞의 책, 30쪽.

32) 천소영, <원시종교와 관련된 우리말 어사에 대하여>, 《畿甸語文學》, 제16집, 15쪽 참조.

33) 시라카와 시즈카, 앞의 책, 341쪽.

34) 리 소테츠는 한자가 말과는 전혀 관계없이 만들어졌다. 한자를 만든 목적은 말을 기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교의식의 과정에 필요한 주술적 수단이었다고 하였다. 즉 한자는 언어를 기록한다든가 물건을 세기 위한 수단으로서 창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문자는 왕의 신성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고, 한자는 누구에게 읽히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가 아니라 신에게 고하기 위해 만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리 소테츠, 앞의 책, 218-219쪽 참조.

이라는 사람들의 믿음에 따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악어문>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것은 그것이 실효를 거둘 것이라는 믿음과 그로 말미암은 평안에 대한 기대와 안심이다. 그러한 것들이 한유의 제사의식과 거기에서 사용한 <악어문>에 많은 관심과 믿음, 전설을 낳았다. <악어문>의 신화화는 일찍이 사람을 해하는 악어라는 대적하기 어려운 대상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당면했었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에 동참했었을 백성들의 몫이었다. 그것이 가능하기까지는 고대인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集團表象의 관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집단표상이란 집단 내에서 대대로 전달되면서 집단 내의 각 성원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심어줌과 동시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집단 내의 모든 성원에게 관련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존경, 공포, 숭배 등의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일종의 관념이다. 개체는 자신의 감정에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상황 아래서 집단 표상을 얻게 되는데 이때의 집단 표상은 순수한 지능과는 달리 논리적 특징이 없이 일정한 대상의 영상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을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힘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실재를 대체하고 나면 집단의 구성원들이 여기에 친숙해지고 또 마비됨으로써 이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복종하게 된다.<sup>35)</sup>

그렇게 본다면 한유는 조주 백성들의 가장 큰 고민을 그 당시의 종교적인 사회 풍토에 부합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민의를 잘 파악하고 해결한 심리치료사와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악어문>이 지니는 ‘문령’의 위력은 실재했다기보다는 인간의 감각이나 이성으로 구별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실재하고 있다고 믿는 일종의 신앙<sup>36)</sup>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5) 김근, 앞의 책, 39-41쪽 참조.

36) 중국의 정사에서도 驅鱷 사건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야기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악어가 과연 사라졌다는 그 결말의 진위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왕안석은 <臨川文集> 卷二十五 <宋潮州呂使君>에서 ‘악어를 쫓아 기괴한 일로 백성

많은 사람들이 한유의 <악어문>을 백성들을 현혹한 비합리적인 문장이라고 비판한다. 물론 그 자체로 보면 분명 비합리적인 것이다. 하지만 한유가 이 문장을 지을 때는 누구보다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악어문>을 받아들일 백성들의 의식구조를 확연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악어문>을 단순히 내용의 합리성이 아닌 문화적 시각에서 연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 V. 나오는 말

인간은 분명하게 설명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로운 것에 끝없는 흥미와 동경을 가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그것은 표면에 드러나기보다는 이면에 존재할 뿐이며 애써 외면당해 왔다. 바꾸어 말하자면 중국의

을 호도할 필요 없네(不必移鱷語, 詭怪以疑民)'라고 하여 驅鱷 사건을 비판하였으며, 宋의 승려인 契嵩은 《鐔津集》 卷十九 <非韓下> 第十六에서 “한유가 <鱷魚文>을 써서 악어에게 주어 고하였고, 세상 사람들이 이 때문에 악어가 물러갔다고 여겼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악어는 곤충과 같이 무지한 사물인데, 어찌 한유의 글을 알겠는가? 설사 한유가 정성을 다해야만 사물이 감동을 한다 하더라도, 정성만 다하면 될 것이지 어찌 반드시 문장을 써야 하는가! 文이라는 것은 성인이 사람을 대하는 수단인데, 그것을 벌레와 물짐승에게 사용하니 이 또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에게 文을 사용해도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하물며 물짐승의 경우는 어떠하겠는가? 사람들은 악어가 떠났다 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唐書》에서 비록 그 일을 칭송했지만 이는 史官의 분별이 없는 것이다.(韓子爲<鱷魚文>, 與魚而告之, 世謂鱷魚因之而逝, 吾以爲不然. 鱷魚乃昆蟲無知之物者也, 豈能辨韓子之文耶? 然使韓子有誠, 必能感動於物, 以誠即已, 何必文乎! 文者聖人所以待人者也, 遺鱷魚以文, 不亦賤乎人哉. 文之其人, 猶有所不知, 況昆蟲歟? 謂鱷魚去之, 吾恐其未然, 唐書雖稱之, 亦史氏之不辨也)”라고 하여 한유의 驅鱷 사건을 부정하였다. 이 두 사람 이외에 宋代까지 한유의 驅鱷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광민, 앞의 논문, 11쪽에서 재인용.) 물론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이견들을 참고해 볼 때, 한유의 驅鱷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의 믿음은 일종의 종교적이고 집단표상적인 심리 작용의 소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대 역사의 시작은 신과의 소통에서 비롯되었지만 고대 중국의 표면적인 문화는 줄곧 이성을 중시하는 유교적 이상사회를 표방했던 것이다.

한유 또한 바로 중국의 표면적인 문화인 유가의 도를 계승하였음을 자처했던 유학자였다. 정치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당대의 사회와 문단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이다. 아니 당대보다도 문운이 흥성하고 이성이 중시되던 송대에 더 존송 받았던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성을 중시하고 도를 중시하던 그의 학문적, 사상적 성향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유와 같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지은 글이 악어를 타이르고 경고를 하는 내용의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힘든 스토리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다소 의아할 수밖에 없다. 악어에게 물러나지 않으면 죽일 것이라는 경고에 그치고 있는 <악어문>도 그 발상이 특이하지만, 그것이 고대 중국의 正史에 편입되었고 심지어는 그 경고를 듣고 과연 악어의 폐해가 없어졌다는 기록까지 부가되었다. 신비주의에 대한 고대인들의 믿음이 역사에 편입되는 순간이다. 역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감성적인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 역사 기록을 보면서도 과연 <악어문>이 진실로 주술적인 힘을 지녀 악어를 쫓아냈을까 하는 의문은 끝내 지워지지 않는다.

당대를 살았던 지식인 한유는 그 시대의 이면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사람들의 심리와 믿음을 잘 파악하였다. 조주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과 희망을 한 편의 문장으로 실어낸 그는 마치 아주 유능한 주술사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잘 다룰 줄 알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의 <악어문>과 그 발상은 민간에서 지지하는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이후 사당이 지어지고 그에 대한 모방 행위가 이어지면서 훌륭한 위민관의 형상으로 남게 된 것이다.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위민관은 사리에 밝고 이성적이기 보다는 진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다.

돌이켜 보면 고대 중국의 이면문화를 형성해 왔던 종교적, 민속적 풍토는 민간의 숨결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오히려 거대한 문화를 형성하였던 것 같다. 애매모호해서 정의내리기조차 힘든 신비로운 모든 것들은 사람들

의 강렬한 관심과 호기심에 힘을 얻어 오히려 강하고 질긴 생명력을 획득하고 21세기 현대인들에게 까지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며, 현대인의 감성과 뒤섞여 새로운 문화로 창조되기도 한다.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제사나 고사를 지내고, 점을 치고 굿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소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것을 부인하는 또 다른 다수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비로움에 대한 행위와 믿음은 지속적으로 문화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 <參考文獻>

- [唐] 韓愈 著, 閻琦 校注, 《韓昌黎文集注釋》(下), 三秦出版社, 2004.
- [唐] 張讀 撰, 《宣室志》, 《文淵閣四庫全書》 [1042], 臺灣, 商務印書館, 1983.
- [金] 王若虛 撰, 《滄南遺老集》, 《文淵閣四庫全書》 [1190], 臺灣, 商務印書館, 1983.
- [宋] 歐陽修·宋祁 撰, 《新唐書》, 中華書局, 1995.
- [後晉] 劉昫 等撰, 《舊唐書》, 中華書局, 1995.
- [宋] 朱熹 集, 《詩集傳》, 臺灣 中華書局, 1982.
- [唐] 孔穎達 撰, 《毛詩正義》, 《文淵閣四庫全書》 [69], 臺灣, 商務印書館, 1983.
- [唐] 李肇 撰, 《唐國史補》 卷下, 《文淵閣四庫全書》 [1035], 臺灣, 商務印書館, 1983.
- [漢] 許慎 撰,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97.
- 노장시, 《한유》, 중문출판사, 2004.
- 리 소테즈 지음, 이동주 옮김, 《한중일 한자문화, 어디로 가는가》, 기과량, 2010.
- 황건 엮음, 이장우·우재호·박세욱 옮김, 《고문진보》, 을유문화사, 2007.

- 김근, 《한자는 중국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민음사, 1999.
- 許進雄 지음, 洪熹 옮김, 《중국고대사회: 문자와 인류학의 투시》, 동문선, 1991.
- 시라카와 시즈카, 《한자의 세계》, 솔 출판사, 2008.
- 시라카와 시즈카, 《한자의 기원》, 이다 미디어, 2009.
- 程薈, 董乃斌 著, 《唐帝國의 精神文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6.
- 고광민, <韓愈 驅鱷 사건과 <鱷魚文>의 수용양상>, 《中國語文學誌》, 32, 2010.
- 劉玉紅, <韓愈<祭鱷魚文>與唐代的神物崇拜>, 《華夏文化》, 2000, 第3期.
- 이영수, <한국설화에 나타난 인신공희의 유형과 의미>, 《한국학연구》 13, 2004.
- 弘禪, <經傳信仰 成立에 관한 一考察>, 《중앙승가대학논문집》 11, 1996.
- 王琳, <韓愈潮州祭鱷의 歷史語境和文化反思>, 《蘭州學刊》, 2007, 第2期.
- 張煜, <論韓愈<鱷魚文>의 文體及其淵源>, 《汕頭大學學報》, 2008, 第2期.
- 陳新璋, <也談韓愈“驅鱷”及其<鱷魚文>>, 《周口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0, 第6期.
- 莊義青, <鱷魚文、祭鱷神話及其它>, 《韓山師專學報(社會科學版)》, 1988, 第1期.
- 言理, <“祭鱷”与“戮鱷”>, 《中国职工教育》, 1996, 第10期.

### <中文提要>

中國古代歷史雖然起源於與神的溝通，但是古代中國的表面文化卻一直標榜著重視理性的儒教式的理想社會。

韓愈，作為宣稱已經繼承中國表面文化、即儒家之道的儒學者，在唐代是一個在政治和文學方面都具有影響力的人。這樣一個擁有社會影響力的人卻寫出了如此一篇不合常理的勸誡鱷魚的文章，讓人不免感到驚訝。《鱷魚

文》以警告鱷魚如果不搬遷將被殺死作為結尾，其構思已經極為奇特，但是，此文在被編入中國古代正史後，甚至還添加了“鱷魚聽到警告後果然遷離，從此當地再沒有鱷魚之患”的記錄。

唐代文人韓愈，洞悉當時的表面文化及百姓的所思所想。他將潮州百姓的迫切的期望融入文章中，如同功力深厚的法師一般撫慰了百姓們的內心。因此，他的《鱷魚文》及其構思贏得了民間的巨大支持，之後百姓為他建了祠堂，進而不斷的模仿他，為他樹立了‘為民好官’的光輝形象。

如此，形成古代中國表面文化的宗教性·民俗性的風土便與民間氣息緊密相連，創造出一種偉大的文化。而這神秘的一切模稜兩可，以致於無法定義，它借助於人們強烈的關心和好奇，獲得了頑強的生命力。不僅如此，作為21世紀現代人的重要研究對象，這種文化與現代人的感性相融合而孕育成一種新文化。

주제어 : 韓愈, 潮州, 驅鱷, 《鱷魚文》, 祭儀, 文靈

